

소, 두산.
 과 같이 하겠지만 編著書가 共著書인 경우의 標目形式에 있어서 編著書에서는 p.53에 있는 것과 같이 이, 한기, 편.
 이라고 하면서 共著書인 때에는 p.3에 있는 것과 같이 차, 낙훈.
 이라고 하고
 차, 낙훈, 공저.
 라고 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고 싶다. 共著書의 標目으로 採記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의 共著者에 對한 副카드에는 「공저」를 附記하면서 基本카드의 標目으로 記入한 共著者에는 「공저」의 表示를 하지않는 까닭을 알고 싶다.

또한 編著書인 때 p.53에 보면 이, 한기, 편.
 이라고 이름과 편이라고 附記한 사이에 「,」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p.76에 있는 것과 같이 원, 영의. 편.
 이라고 이름과 편이라 附記하는 사이에 「.」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싶다.

다음에는 外國의 團體名을 標目으로 記入할 때 두가지의 相違한 例示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KCR p.50에 있는

일본. 코쿠리쓰 쿡카이토쇼장.
 全日本出版物總目錄, 昭和 30年版.
 이고 또 하나는 p.84에 있는
 日本色彩研究所.
 色の標準. 改訂新版.

이다. 外國機關에 對한 標目的 形式이 이 두가지 例示에서 어떤 例를 基準으로 해서 目錄을 作成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副書名の 取扱)
 副書名の 定義에 對하여 圖協에서 編한 圖書館用語集 p.55에 보면

부서명(副書名)
 正標題를 補充하기 위해 附加한 書名 또는 本書名을 부연하는 書名으로서 主書名の 다음에 繼續한다.

라고 定義하고 있고 또한 張一世 著 「韓國目錄規則解説」 p.270에 보면

부서명—本書名 다음에 있으며 그 本書名을 설명하는 성격 가진 부분을 말한다.

라고 解釋하고 있다. KCR에서 書名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取扱한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p.2 이, 현구, 1905—
 模索의 途程; 李軒求 評論集.

p.4 한, 영순, 1941—
 101番地の 女僧; 용문굴 女僧의 獄中告白手記.

p.65 펜코프스키, 올레그
 모스크바의 안개; 소련二重間諜의 暴露手記

p.19 박, 계주, 1913—
 春園 李光洙: 그의 生涯, 文學, 思想,

p.77 한국. 보건사회부.
 保健社會白書: 國民保健과 社會副社

p.25 안, 인희, 1927—
 中學校生徒의 要求와 指導, 思春期 特徵을 中心으로,

p.19 박, 하산.
 鬪魂의 별은 살아 있다, 實記 朴烈評傳; 抗日思想家的 燦然한 鬪爭記.

이상의 例와 같이 「, : ;」의 세 種의 記號를 使用하여 本書名과 副書名을 區劃表示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表示한데에는 그럴 理由가 있을 것이나 筆者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 例中에서 p.19에 있는 例示인
 박, 하산.

鬪魂의 별은 살아 있다. 實記 朴烈評傳; 抗日思想家的 燦然한 鬪爭記.

를 보면 萬一 「;」이 副書名을 表示하는 記號라면 「鬪魂의 별은 살아 있다」에 있어서 「實記朴烈評傳」까지가 本書名이 되고 「抗日思想家的 燦然한 鬪爭記」가 副書名이라고 볼 수 있던가 아니면 「鬪魂의 별은 살아 있다」와 「實記朴烈評傳」의 두 標題의 內容을 갖인 圖書라고 볼 수있다. 이런 경우 現品을 보아야 하겠지만 「實記朴烈評傳」을 혹시 別書名으로 取扱하면 어떠할지 알고 싶다. 副書名の 取扱을 張一世 著 韓國目錄規則解説에서 찾아보면

p.88 김, 정식, 1903—1935.
 (決定版) 素月全集 뜻있을 그사람: 新收錄詩, 感想, 書簡, 小說全載.

p.116 박, 계주, 1913—
 春園 李光洙: 그의 生涯·文學·思想
 이라고 되어 있는바 副書名에 對해 「述하는데 그의 生涯文學 思想을 끊는 記號를 하나는 「,」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으로 되어 있는바 어떤것을 基準으로 해야할지 알고 싶다.

(卷次表示)
 KCR에서 卷次를 表示한 例를 보면

p.72 손, 진태.
 韓國民族史概論, 孫晉泰 著. 上卷.

p.79 武林掌故叢論, 26集, 丁丙編.
 p.66 한국. 문교부.

한국동식물도감, 제5권. 식물편.

목, 초본류.

라고 되어 있는바 張一世 著 規則解説 p.206에 보면 「記入體 가운데서 著者表示 바로 다음에 그 卷次를 기입한다」라고 있으며 KCR p.72의 것과 同一한

손, 진태.

韓國民族史概論, 孫晉泰著. 上卷.

이라고 例示되어 있다. 그리고 p.202에 「그러나 기본 기입으로 쓰여진 성명과 著者表示로 쓰인 著者表示는 생략하여도 좋다」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著者表示가 不必要할 때에는 書名에 이어서 卷次를 表示하게 되어 있다. 上記한 KCR의 세가지 例를 보면 著者表示가 있을 때에는 「.」으로 끊고 卷次를 表示하고 있고 著者表示가 없을 때에는 「,」으로 卷次를 繼續된 것으로 表示하고 있는바 卷次表示는 著者表示가 있고 없고와 關係가 되는지 그리고 卷次表示는 「.」으로 끊고 나서 表示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 繼續해서 表示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p.79에 例示된

武林掌故叢論, 26集, 丁丙編.

에서의 丁丙編이라던가 또한 p.66에 있는

한국. 문교부.

한국동식물도감, 제5권. 식물편.

목, 초본류

에 있어서의 식물편은 바로 앞의 表示한 卷次의 內容을 說明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 더욱이 제5권 식물편 목, 초본류는 제5권이 식물편인데 식물편에서도 목, 초본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卷次에 對한 一次的 二次的 說明이 아닌가 생각되며 만일 그렇다면 二重的 說明에 있어서의 記號가 「.」 또는 「,」 아니면 「:」이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KCR p.70에 例示되어 있는

대한과학도서간행회.

과학실험도해사전; 화학실험편.

에 있어서 화학실험의 取扱이 副書名인지 아니면 이것은 과학실험도해대사전이 여러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卷次로 取扱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以上 KCR에 例들 中에서 疑問이 되는 몇가지를 質疑하는바 本誌面으로의 解答을 바라는 바이다.

청 사 진

누구나 계획을 갖는다. 일을 해 나갈 계획도 한다. 그 사항들이 이루어졌든 아니든 다시 하곤, 또 그 목표에 가까우려 그들 나름으로 애를 쓰는 것을 본다. 자신에게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혹은 누구나에게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흔한 일이다. 인간에게 인간이 속한 집단에, 크고 작음, 옹고 그림,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계획이란 것을 늘 주위에 감롭게 마련이다.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데에서 인간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란 것은 수궁이 가는 말이다.

청사진(靑寫眞)이란 말이 있다 청색사진의 준말이고, 영어의 blue print에서 비롯된 언어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말의 뜻은 이러하다. 간단한 선도(線圖) 등의 복사에 쓰는 사진의 한가지로서, 제이철염(第二鐵鹽)이 햇빛에 비추어 제일철염으로 환원되고 그것이 다시 적혈염(赤血鹽)과 반응하여 푸른 빛을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보통 구연산(枸橼酸)이나 수산(修酸)의 제이철염과 적혈염과의 혼합

수용액을 종이에 발라서 그 감광지에 원화를 부착시켜 햇빛이나 전등에 대어서 밀착시킨 것을 이른다. 예서 이의 원리, 과정과 내력에 관한 설명을 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과학적 의미의 청사진이 아니라, 일반화된 청사진의 속성같은 것을 음미해 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과 청사진은 상통하는 개념일뿐만 아니라 후자가 더욱 보람이나 삶의 진취적 의미와 진보라는 관념과 밀착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의 시민으로 또 한 전문단체에 속한 회원으로

도서관인 집단은 허황되지 않으면서 내실을 다져갈 수 있는 청사진을 시의(時宜)에 알맞고 미래지향적인 기저위에

KAL 코너

세워야 되지 않을 것인지. 전문적 사서로서의 자질의 일대 부상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소속 집단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위한 더 많은 역학적 노력의 집중화, 혹은 전문적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사업의 전개등에 관한 공익성을 떠운 원대한 blue print를 마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결국 이 나라의 문화창조의 핵심기관으로 도서관이란 생명체로서의 기관을 끌어 올릴 과제는 개척기 도서관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므로.

(S.W. HAN)